

2016년 1월 31일 주일 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유진 목사

**“나는 너의 것이다” (I am Yours)**  
**민수기 18장 20절 (Numbers 18:20)**

1.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 엄청난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눈 이야기로 교우 여러분들간에 많은 교제의 이야기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눈을 치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치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엄청난 눈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었지만, 우리의 가정도, 거실도, 침실도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또, 이렇게 2주 만에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한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how have you been? Were you really okay? Surely it was a massive snowstorm. I guess many of you must have talked about snow-shoveling experience today. Shoveling snow is an issue but finding a snow-dumping site is another one. Last Sunday we had cancelled our worship service, but we may realize our home, living room, or bedroom could be all holy sanctuary of God. His grace is very refreshing as we offer a worship service in two weeks. Anyway, I pray again that God's love and grace would fall on you all.

파워볼을 기억하시지요? 여전히 미국 내 최대 로또 중의 하나입니다. 몇 주전, 온 나라를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으로 흔들었던 파워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 비싼 금액도 아니어서 부담없이 재미삼아 사신 분들이시겠지요. 당첨금이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약 15억 달러 (한화 1조 8,000억원)의 금액이었다고 하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로또를 사신 분들은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과 더불어, 즐거운 상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1등만 되면, 교회에 십일조를 하고, 나머지로 뭐할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등등의 상상은 아마 받을 금액에 비하자면 매우 겸손한 상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로또로 당첨되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그것이 지나칠 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적당한 물질은 은혜이기도 하고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물질이 지나칠 때에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유혹과 탐욕의 이유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적어서 궁핍하지 않도록,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You all may remember “Powerball.” It is still one of the lotto with huge prize money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you probably bought Powerball tickets that shook the whole world with astronomical prize money. There might be the ones who purchased the tickets just in case or just for fun because lotto tickets are not expensive compared to huge prize money. The prize money was 1.5 billion dollars, so it was unimaginably big for ordinary people. Those who purchased the tickets might imagine like “I may not win anyway,” and at the same time they might dream a funny dream, “If I win, I offer tithe, and then what? Buying a mansion, a luxury car...” For the magnitude of prize money such dreams must have been so naïve. Anyway, all the imaginations turn into a daydream. However, as you may all know, none of those lotto winners in the history lived a happy life even after earning huge prize money. Double-sidedness of wealth always reveals itself when it is too much. Adequate amount of wealth becomes grace and a means of grace; but when the amount is too much, it becomes the reason for temptation and greed. So, we ought to pray as such “Not to be poor due to too less; and not to be conceited due to too much.”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지요. 공짜라고, 한 개씩 만 가져라가 하면 꼭 두 개, 세 개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지요. 형제 간에 분쟁의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유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물려 받은 유산이 적으면 분쟁이 적을 수가 있는데, 유산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땅을 물려 받더라도, 조금 더 큰 땅을, 부동산을 물려 받더라도 조금 더 큰 집을... 이렇게 욕심을 내다보면 분쟁이 나지요. 재미삼아 샀었던 파워볼이나, 더 많이 물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말입니다.

However, it is not easy at all. It is because we have greed in our mind; the greed of having more and earning more. If it is free to take one home, many people take more than one. It is due to greed. Conflicts among siblings often occur due to monetary inheritance that parents leave to their children. If no or small money are available, no or only small conflicts may arise. Otherwise, siblings start quarreling in order to acquire more money. More real estate, bigger house... Greed brings about conflicts. The source of wanting to win Powerball or to earn more inheritance from parents is the same. It is greed; greed about wealth.

말씀을 시작하면 파워볼과 유산의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인이 된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양면의 실체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헛갈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reason I start my sermon with Powerball and inheritance is we are not still completely free from wealth as we are living here on earth. Rather, we believers of Jesus Christ may be confused about our real identity at choosing either God or money.

2.

우리는 지금 구약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읽을 때 볼 수 있는 구약성서의 틀 중의 하나는 대결구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아담을 사이에 놓고 대결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간의 대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와 이삭이라는 자녀를 두지요. 파라오와 모세가 출애굽을 두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대비시키며 구분하라고 합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대결구조는 지속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풍요와 물질으로 상징되는 바알을 따를 것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면면히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 6:24).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업신여길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신앙인은 재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We all are reading the Old Testament. One of frameworks in the Old Testament is rivalry between God and Satan. God and Satan are fighting to win Adam with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n the middle of unseen promise but observable reality, Abraham delivered two sons, Ishmael and Isaac. Pharaoh and Moses are fighting for exodus. Then, the Bible asks us to discern the holy from the unholy. The rivalry continue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We didn't read it yet, but rivalry between Elijah and Baal prophets is the one of climatic events in stories of the Bible. The question whether we follow God who is the Living God, works for us and is the source of life, or Baal who is a symbol of affluence and riches flows throughout the whole Bible. This question is still valid to us. This question is never an easy or light one to answer. Thus, living a faithful life or believing God is never an easy task. We can't serve both God and money at the same time. It is what Jesus Christ said, "You can't serve two masters." Jesus Christ said in the Book of Matthew,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Matthew 6:24).” Faithful believers ought to be the one who values God the most over riches at the choice of either serving God or wealth.

자녀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휩싸여 자녀를 대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욕심을 낸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보다는 내 노력과 성취 능력을 자녀를 통해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여전히 바알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혼합되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과 성공과 풍요가 따라온다고 하는 기복주의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길이 아닌 바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시대에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The same is true to child-raising. Every parent wants their child to be successful. However, if obsessed with success or materialism and they force their child to work for success, they are showing greed of their own and forcing their child to realize their own dream instead of acknowledging God as the owner of their life. We often observe belief of Baal mixing with belief of God in our surrounding. How absurd it is to pursue prosperity, success, and affluence, and believe God at the same time? How many Christians have been misled to belief of Baal due to the belief that God brings prosperity, success, and affluence? The problem is not only for us today but also for those in the time of the Old Testament.

3.

지난 주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 앞에 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드러나지 않은 모습으로 모세를 지원했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아론의 부족함 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장면은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As I read the book of Numbers last week, someone who was facing a question of faith grabbed my attention. It was Aaron. I understood him only as a person who supported Moses behind the curtain. I probably only paid attention to Aaron's deficiency, accentuated by the event of the golden calf in Exodus. I thought that his lame excuse to Moses that he did it because the people wanted him to, clearly showed how unqualified he was as a leader. Following the book of Leviticus, as I read the book of Numbers again, I had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Aaron.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모세를 도와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며 세밀한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제사장 옷을 처음으로 입은 사람이었고, 대속, 즉 죄를 전가하는 의식으로 정결의식을 행한 첫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들이 4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는 그들의 첫번째 제사에서 주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 장과 민수기 3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주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애도할 수도 없었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거룩성 앞에 아무 변명이나 원망을 할 수 가 없었던 것이지요.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레 10: 3). 자신의 아들들의 주검 앞에서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Aaron was Moses' older brother. For that reason, he partook in the Israelites' journey out of Egypt in support of Moses, who was chosen as their leader. Also, Aaron was the very first high priest of Israel. He was the one who wore the high priest's garment made according to God's detailed direction for the first time. He also was the first person who conducted a purification ceremony, removing people's sins. Aaron had four sons; the first Nadab and the second Abihu were consumed by God's fire in their first sacrificial offering. This was mentioned in Leviticus Chapter 10 and Numbers Chapter 3. Aaron couldn't mourn or feel sad despite his sons' death by God. Before God's firm holiness, he could not complain nor make an excuse. Leviticus reports this as follows: “Moses then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the deaths of Nadab and Abihu): Among those who approach me I will be proved holy;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I will be honored.” Aaron remained silent (Leviticus 10:3). Aaron couldn't say anything even confronted with the death of his own sons.

아론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주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각자의 불로 향을 피워 죽임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망나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7 일 동안의 정결의식을 치렀고, 이스라엘 장로 70 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멀리서나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고위 성직자요, 귀족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전 예고 없이 하나님으로 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지정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혔다고 해서 말이지요.

Who were Nadab and Abihu? They were killed because they lit fire with their own, unauthorized by God, but they were not totally worthless like the sons of Eli in Samuel 1. Nadab and Abihu conducted purification rituals for seven days with their father Aaron; they were two of the 70 elders of Israel; they observed from a distance when Moses met with God, and were given privileges to serve God near Him. By today's standards, they were high-ranking clergymen, aristocrats, and national leaders. As a father, Aaron must have felt so proud of his two sons. But these successful sons were killed by God without any foretelling; only because they did not light fire according to God's instructions; because they blemished God's holiness.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넓지 못한 분으로 보입니다. 좀 더 큰 마음으로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당시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장례도 못치르고, 애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Reading as far as here, it seems that God is not very generous. With a bigger heart He could have forgiven their mistakes, but how could He be so cruel? Even those of us who are reading this story today tend to feel that way; how then must have Aaron felt? His sons had died, but he couldn't have a funeral nor grieve over their deaths. He had to silently carry on with his duties as the high priest.

4.

그 뿐입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부르시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 책임을 진다’” (민 18:1).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론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방향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말씀과 지시를 들었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약속도 없고,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That was not all. God appeared before Moses and Aaron and talked to them often. Some scenes describe God presenting Himself to Moses alone. In other scenes, He called them both. Other times, it was only Aaron that God talked to. God said the following when He talked to Aaron: The LORD said to Aaron, "You, your sons and your family are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offenses connected with the sanctuary, and you and your sons alone are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offenses connected with the priesthood (Numbers 18:1)." The way God talked to Aaron seems rather different from the usual image we have of God. Didn't He have to encourage Aaron, console him, and promise him restoration? Contrary to this, God talked about the nature of sins and who are responsible for offenses. God seems cold hearted. How would Aaron have felt? The Bible does not comment on how Aaron felt when he heard this command from God. There was no promise of reward, nor any mention of success or material wealth.

어찌보면 아론은 맘 고생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아론에게 좀 너무하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무리 선택된 제사장이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지만,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력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는 경우도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생인 모세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모두 잘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약속된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도,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얼마나 아론에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적당히 하시지, 어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몫이 없다고 하시느냔 말입니다.

In a sense, Aaron seemed afflicted with heartaches. Because of whom? It was because of God. God seemed a bit harsh on Aaron. He was a chosen priest and given the most holy privileges that such a position entailed; nonetheless, Aaron was not described in the Bible as the leader of his people like Moses. Nor does the Bible mention that he was praised as a great advisor or supporter of his brother. He was rebuked by Moses and also by God. Not that all his sons turned out successful. Two of his sons were burned to death by God. Not that he had a land promised for him. Nor a future secured. Aaron must have felt afraid that he couldn't keep all the rules that he was obliged to. His life was not something he could choose. In today's verses, God told Aaron the following: "You will have no inheritance in their land, nor will you have any share among them." How cruel God was to Aaron! This was too much. How could He say that Aaron had no share even after entering their land of promise?

5.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제 마음이 망치로 크게 맞은 것처럼 멍멍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멍멍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했던 속마음이 여실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However, the next part of the scripture touched my heart greatly as if it was hit by a hammer. I thought God was going too far, but God enlightened my heart. The scripture says, "I am your share and your inheritance among the Israelites." When I read this Word, my heart was overwhelmed. I lost my word before God. My thought about God going too far was completely gone. Let us look at verse 20 again, which is today's scripture: "The Lord said to Aaron, "You will have no inheritance in their land, nor will you have any share among them; I am your share and your inheritance among the Israelites."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의 몫이 되어 주겠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땅이나 물질이 아니라 내가, 나 창조주 여호와가 친히 너의 것이 되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더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것이다”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몫이라고, 내가 너의 유산이라고 하니, 유산의 소유자는 바로 “너”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물질이나 땅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네가 소유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this Word shows how God thinks of Aaron. It means, "I myself will be your inheritance. I myself will be your share. Rather than any land or materials that you see in this land, I, Jehovah God who is the Creator, will be yours." Simply put, it means, "I am yours." It is not "You are mine." but "I am yours." Since the Word says "I am your share and your inheritance," the owner of the inheritance is "you." The Word of promise to Aaron is not about land or materials, but this amazing promise is that Aaron will inherit the God of hosts.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아론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약속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차지할 땅은 없다. 이 세상에서 네가 땡땡 거리며 거드름 피울 정도의 로또 당첨은 없다. 그 엄청난 금액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너의 유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네가 받을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I believe this promise was not just given to Aaron who appeared at the time of Numbers. Nor is it just given to the pastors who do the ministry these days. This promise is given to every believer who wants to be holy before God: "You have no inheritance in this world. You have no lottery



win that will make you quite well off and put you on style in this world. That enormous amount will not be yours. Fame, power, or money in this world will not be your inheritance. However, your share, your inheritance among all the people in the world, is me."

물질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좁아 보이고 때로는 잔인하게 생각되었던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여지없이 틀려버렸습니다.

Instead of showering us with wealth, God throws Himself on us. And God tells us, "I am yours." Through Aaron, God is promising us that God, instead of things in the world, will be our inheritance. Therefore, my thought about God being too intolerant and sometimes even cruel in the Old Testament is completely wrong.

6.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험지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아론처럼,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이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욱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의 약속된 소망, 약속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런 유산이나 몫이 없다는 선포를 들었던 아론처럼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었던 아론처럼 말입니다.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some of you may be walking through a rough terrain of life. Just like Aaron, some of you may be feeling a pain like losing a child. And some of you may be in a situation in which you cannot grieve or mourn for such pain. Some of you may want to hold onto the promise of God but do not know what it is. Some of your family members may be too sick to recover. Some of you may be in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you feel oppressed by the weight of life that comes with a yoke for the entire lifetime. What is more despairing is that there is no promise of hope in this land, just like Aaron who was told that he did not have any share or inheritance among the Israelites and who could not mourn or grieve for his sons' death when they died with God's fire.

그런데, 교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땅의 유산이나 몫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몹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 되겠다.” 보십시오. 이 땅의 물질이나 땅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몹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자랑하거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처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할 책임일 뿐입니다.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if you are in such a situation as above, please take today's message. You may not have any inheritance or share in this world as you live. However, God's promise is this: "I am your share. I will be your inheritance." The person who receives God as inheritance instead of materials or land in this world is truly a blessed person. God is fair. For those who received things of this world, that's all they received. However, those who believe the Lord should be receiving God as their inheritance instead of things of this world. The Lord Himself is their share. Therefore, we should not be boastful of the things of this world or glamorize them as if they are the blessings granted by God. They are just responsibilities that we must share in this world.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 가운데 아론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슴 속 깊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신앙의 길, 제사장의 길, 거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약속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받은 몹,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Among many Israelite tribes and people, it was Aaron whom God said as such. Do you know to whom this Word is directed at these days? God says to those who silently take a path of faith, a path of priest, and a path of holiness while bearing the pain of losing their children deep down in their heart. God says this Word to those whose weight of their own cross is so heavy, who are surrounded by unavoidable hardships, and those who do not have any promise of hope: "Your share, your inheritance, is me."

7.

교우 여러분. 물려 받을 유산 때문에 싸우시겠습니까? 파워볼에 마음을 빼앗겨 일확천금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러한 몹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남들 다 차지하는 땅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론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묻는다면, 저는 땅을 유산으로 받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아론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경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론입니까,

물려 받은 땅이 있는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용기내어 읽고 결단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ill you fight for the inheritance? Or, will you want hit the jackpot, losing your heart due to the Powerball? Unfortunately, we, who have faith in Jesus, do not have such portions. We don't have any land for us, even the land that all Israelites have taken. If I were asked to select Aaron or other Israelites, I will take the way of Aaron who received God as inheritance, rather than the Israelites who inherited land. We cannot serve God and materials at the same time. It is very natural if one is treated as highly valuable, then the other is treated less. How about you? Do you want to be Aaron or other Israelites who inherited land? I'd like to finish today's sermon by reading today's scripture. Read it and make the decision courageously. I pray the grace of inheriting God as our share will be upon us.

“주님께서 (각자 이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The Lord said, "You will have no inheritance in their land, nor will you have any share among them; I am your share and your inheritance among the Israelites." (Num. 18:20)

기도하시겠습니까.

Let us pray.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어찌 이리 잔인하신지, 어찌 이리 매몰차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유산이 되고자, 우리의 몫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케 하시사, 물질로 물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여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산, 우리의 몫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God, we misunderstood You while reading your words. We thought You were cruel and heartless. While reading the words, we were scared and sometimes could not understand it. But we understand your Will through the word, “Be Holy,” you strongly insisted; that was your intention for us to be the inheritance and the share. Lord, please allow us to take God, not materials, as our inheritance. Please allow us to recover the holiness. O Holy Spirit, be with us. So, our mind that imbued with materials can change, and so, we will consider God as our shar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share and inheritance. Amen.